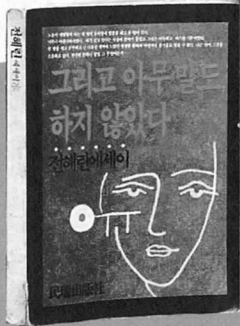


영혼을 뒤흔든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시인 조재영씨가 뽑은 전혜린의
《그리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정신적 사치를 위해 육체의 가난을 즐길 수 있다는 것과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자신을 내던지는 자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혜린을 통해 알게 됐죠.”

인터넷에서 시전문웹진 <시마을의 코르크마개를 열면>(http://user.chollian.net/~pinc65)을 운영하고 있는 조재영씨(35, 시인)가 선택한 책은 전혜린의 《그리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민서출판사)다.

“제 인생을 강하게 흔들어 놓은 최초의 책이었습니다. 목마른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이땅에 사는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해 사유하도록 만든 책이었죠.”

그는 고등학교 시절 이 책을 처음 만났다. 전혜린의 광기에 찬 생활과 불꽃같은 삶은 한창 예민한 나이였던 그에게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왔다. 또한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존재가 어떻게 현현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물음들 역시 그에게는 충격이었다.

“정신적 사치를 위해 육체의 가난을 즐길 수 있다는 것과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자신을 내던지는 자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녀를 통해 알게 됐죠.”

이 책은 전혜린의 일기와 편지, 에세이를 묶은 것이다. 여성의 삶과 사랑에 관한 그녀의 사유가 열정적인 문장으로 표현돼 있다.

“그녀가 유학생생활을 했던 독일의 슈바빙 거리를 걷는 꿈을 밤마다 꾸기도 했습니다. 독일문학에 대한 동경도 그녀에게서 비롯된 것인지 모르죠.”

그녀에게서 그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소개받았다.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와 막스 쾰러의 《독일인의 사랑》, 잉게보르크 바하만을 밀쳐쳐 가며 읽은 것도 전혜린 덕이다.

“그녀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했던 한 시절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전혜린이 죽던 해 제가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벅차 오르곤 했죠.”

얼마 전 그는 다락방에 잠들어 있던 전혜린과 다시 만났다. 문득 그녀가 생각났던 것이다. ‘노을이 새빨갭게 타는 내 방의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운 일이 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였다.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갑자기 울었고 그것은 아늑하고 따스한 기분이었다’는 구절에 그었던 밑줄은 어느새 색이 바래 있었다.

“오랜 옛날 내게 했던 주문을 다시 걸어봅니다. 때로 절망할지라도 모든 것을 걸고 뜨겁게 사랑 하는 것, 그것이 짧은 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전혜린을 다시 기억하는 조재영씨가 독백처럼 내뱉은 말이다. - 최갑수 기자

열린 마당

좋은 책을 만들어
팔아 드립니다.

실비 제작
성실한 판매

저희 열린마당에서는 경험과 識見을 갖춘 頂上의 편집자·출판미술가·사진작가 등이 온 힘을 모아 '좋은 책'을 기획·편집하고 있습니다.

- 단행본
각분야의 실용·교양·전문서/체험수기/자서전/회고록/일기집/화집/사진집/참고서/시집/소설집/에세이집 등의 단행본 출판물
- 그밖의 출판물
각기업의 사보/사외보/협회보/카탈로그/브로슈어/리플릿/기업/社史/團體史 기타 기념출판물

원고작성·번역·편집·디자인·제작·판매代行

110-775 서울·종로구 경운동88 수운회관1213호
전화:739-0180(代) 팩스:739-0160



高品質의 제작

이때까지는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제작·인쇄·제본 등의 工程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했고 인력부족 등으로
품질이나 납기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삼덕미디어에 맡겨 주십시오.
책임제작시스템으로 정성스럽게 제작하여 高品質의
출판물을 납기일에 어김없이 납품하겠습니다.



110-775 서울·종로구 경운동88 수운회관1213호
전화:739-0180(代) 팩스:739-0160
인쇄·제본공장:465-4707(代)